

무대와 객석 공간의 반전

Reversal of Position Between the Stage and Seats

건축사 / 부대진(진아건축 · 도시 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동정근(인하대학교 교수)

Dong Jung-Geun vs. Bou Dae-Jin

일시 / 98. 11. 23(월) 17:00

장소 / (주)진아건축 소장실



대담광경(왼쪽: 동정근, 오른쪽: 부대진)

동정근 _____ 작지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에서 공간으로 많은 말을하고 계신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간 대형작품을 주로 하셨는데 작은 이 작품을 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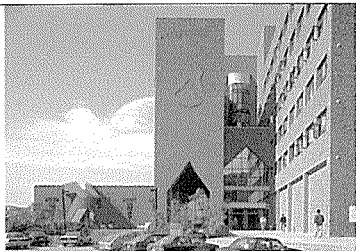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고도 재미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복잡한 부분으로는 주택의 건축적 프라이버시를 단지 증축만을 통해 퍼블릭 스페이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과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주변의 주택가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매우 낮은 예산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표현해야 하는 점이었지만 이 모든 여건들을 모순처럼 안고 있는 사이트를 풀어가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이 선보이는 프렌치 차이니즈 레스토랑의 성공여부까지도 책임질만한 건축을 시도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설계를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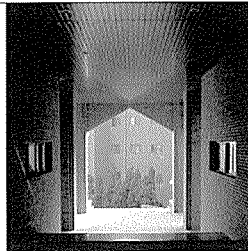
동정근 _____ 이 작품이 위치한 지역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진 _____ 물론 상업지역과 주택가간의 연결은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현명하게 풀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청담동 압구정동 지역은 기존의 주택 단지 내에 작은 규모의 상업 공간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이 지역의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상업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성을 반경 2km 정도의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현재의 이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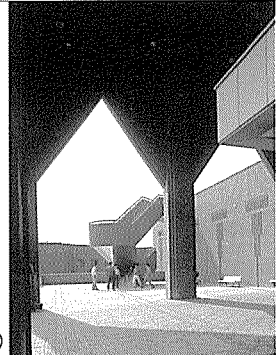
지금의 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자본과 정보의 흐름에 의하여 각국의 특별한 지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인 지역에 상위되는 지역성이 세계 곳곳에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소호지역, 동경의 룩본기, 홍콩의 쇼핑가, 뮌헨의 막시밀리언 스트라세, 베를린의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여기서 거래되고 소비되는 문화는 그 나라의 특징을 반영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의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건축물 또한 그곳의 지역성과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에 민감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서강대 다산관



서강대 다산관
(지하1층 출입구)



서강대 다산관(옥상 외부공간)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하고 이를 통해 계속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일류 호텔들은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공간 편성의 방법이 맞물려 생성되는 결과입니다.

동정근 _____ 지역성에 대하여 매우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지역성과 국제성은 독자성과 혼합의 배타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진 _____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개발 요구 또한 국제 네트워크의 흐름의 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90년대 이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소비성향에 대응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이곳에 가장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지역 질서와 대응하는 이질적인 성향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아주 엇비슷한 현상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질성을 묻고 망설이는 견해는 조금은 지나간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고려가 더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만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편견을 버리고 좀더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고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정근 _____ 평소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대진 _____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각기 외모와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 또한 다릅니다. 만일 내가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이리이런 사람이요” 하고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 기억과 경험의 복합체인 그 사람을 몇 마디로 단순화시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 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각각의 특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황마다 다른 건축적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닌 이미 복잡하고 복합적인 총체인 도시에 또 하나의 대안을 보태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건축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한 광화문 1994는 주변의 지역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이고 큰 규모의 작업이었고 이번에 완성한 시안은 내향적이고 작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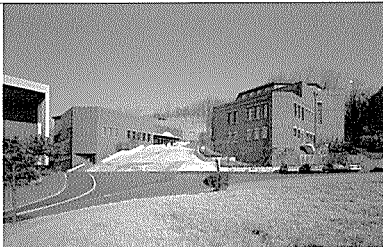
동정근 _____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작품은 길에서의 표정 특히 밤의 표정이 매우 독특한데 이 골목길에서 밤과 낮의 행태가 다른데 그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진 _____ 밤의 서울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형광빛 네온사인에 의해 길의 구획이 칼날 같은 선으로 지어집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온 격자 내부의 어둠이 매력적입니다. 도무지 그 어둠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 블록 내부의 어둠은 현란한 네온빛의 뒤편에 만들어진 우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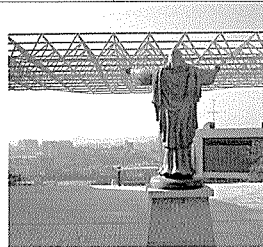
시안의 파사드는 도시 블록 내부의 어둠과 블록 외피의 네온빛의 역전입니다.

동정근 _____ 골목길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연결방법 즉 내외부 공간의 연결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먼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이해



서강대 이나시오관



서강대 성이나시오관 (진입광장)



서강대 도서관 (휴게 마당)

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물은 주택이었습니다. 이 주택의 마당은 현재의 길 보다 한층 높이가 있었고 그 밑에는 차고였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개축을 하더라도 주차대수가 3대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연립주택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양 옆은 주택으로 역시 길로부터 1층 위에 마당이 있어 길에서 바라본 모습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작은 대지에 최대한의 공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성향이 서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정근 _____ 내외부의 매개공간들, 즉 입구와 진입계단 그리고 내부공간에서 뒤돌아보는 외부공간은 메비우스의 고리를 연상시키는데 의도가 있습니까?

부대진 _____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들 조건들을 소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진입을 최대한으로 내부로 깊숙이 끌어 들어 심리적인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길에서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왔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주변의 상황과 차단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새로 들어오는 손님과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과의 관계를 무대 위의 배우와 관객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정근 _____ 배우와 관객의 역전은 이 작품에서 공간연결에 대한 주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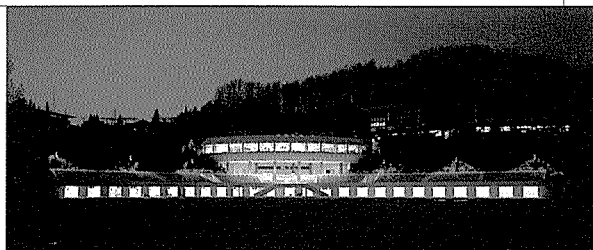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도로 레벨은 개인 주차장으로 쓰

입니다. 주차장의 파사드는 전체 파사드보다 한 켠 들어가 있어 진입을 암시합니다. 주진입은 메인 파사드를 관입하여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눈앞에는 철판과 너트로 구성된 또다른 파사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벽은 건물의 두 번째 파사드입니다. 내부의 공간은 사실은 매우 좁지만 심리적으로 이 벽까지 공간이 확장됩니다. 접근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주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조금씩 관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문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리셉션이 있는 진입 레벨은 주식사공간보다 1.35m 가량 높이가 위치한 무대가 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주식사공간과 2층의 발코니 공간을 모두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식사중인 사람들도 새로 등장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식사공간은 주차장이 지붕이면서 기존 주택의 마당 부분입니다. 진입 공간은 기존에 거실이 있던 부분입니다. 원래 마당이 거실보다 1.35m쯤 낮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배우는 무대 계단을 통해 관객으로 편입되고 또 다른 배우들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새로 등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식사중인 관객이 또 다른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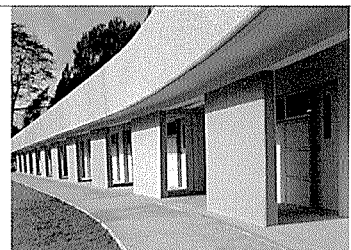
동정근 _____ 외부와 내부공간을 착각하게 하는 외부공간의 해석은 독특한데 이 작품에서 시도하는 마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설계를 하다 보면 법적 제약이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안의 마당 또한 그런 경우입니다. 주어진 건폐율로 최대한 공간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당이 제안되었습니다. 마당의 모양에 대한 다양한 스테디가 이루어졌고 최종안은 전면 파사드와 진입 계단 건너편의 공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빛의 마당' 이고 건물의 '중심' 입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는 전통 마당과는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 외에 평소 내외부 공



서강대 엠마오관



서강대 엠마오관
(운동장에 면한 회랑)

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부대진 _____ 건축이 그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그 주변의 상황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이는 집합 주택인 효성빌라, 캠퍼스 건물인 서강대학교의 다산관이나 성 이나시오관, 엠마오관(스탠드 건물), 그리고 오피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건물에서 개방 또는 반개방의 다양한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내부의 전이공간을 마련하여 휴식, 집회, 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평면적인 내부 공간의 확장도 영향뿐만 아니라 단면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대진 _____ 주변과 형성되는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건축이 놓여지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데 시안의 해석은 완벽한 단절에 의한 독립이었고 이것은 주변의 요구와 그에 따른 해석의 결과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질적인 공간이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건축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표피가 가지는 한계를 내부의 풍만함으로 대처시킴으로써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정근 _____ 기존주택을 증·개축하였다고 들었는데 건축에서 재생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진 _____ 사람에게서는 Life Cycle이 있습니다. 시간(나이)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은 공간적 유동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80년대초 지금 살고 있는 효성빌라를 설계할 때에는 벽구조를 지양하고 기동구조로 고집한 이유도 추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구성원이 바뀌면서 집의 구조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유동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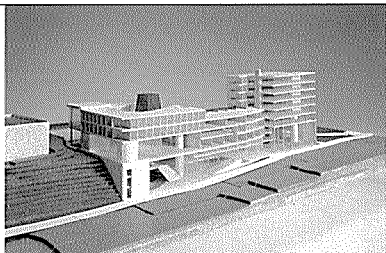
내재된 유동성(Flexibility)은 건축을 강하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체 건물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정도 들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도 중첩이 되지 않을까요? 시안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는 우리 설계사무실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정근 _____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은 서로 다른 구조와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시공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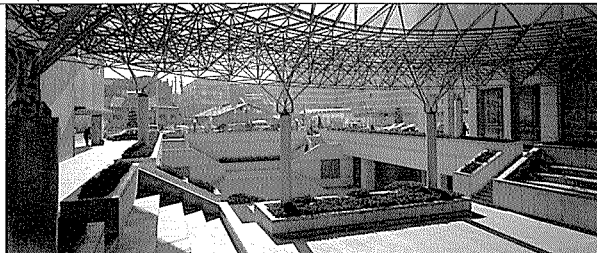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시안의 경우는 기존 건물의 구조가 80년대 초반 주택 공사에 흔히 쓰인 벽구조로 되어있어 기존의 공간을 바꾸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구조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한 후에 비로소 구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물에 철골 박스를 옆에 덧붙여놓은 구조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기존 건물의 질서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동정근 _____ 철이라는 재료를 다양하게 구사하셨는데 특히 벽으로 사용한 몇 종류의 철판에 담고 있는 어휘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기존의 재료를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증·개축일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또다시 그 모습을 바꾸어



서강대 국제관



홍인동 한성빌딩
(오피스동과 스포츠동 사이의 외부놀이마당)

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콘크리트 구조는 제외되었습니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된 폐자재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철은 그 재료가 먼저 말한 건축적 유동성(Flexibility)에 부합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조립식 박스와 같이 만들어진 이 건물은 나중에 나사를 풀어 해체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CORE 10 Steel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면 녹 방지용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성된 결과는 다른 느낌을 가져 왔겠지만... 대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주들이 좀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과 같이 작은 건물의 경우 재료에 대한 색다른 실험이 많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을 떠나서 그간 건축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고도성장기에 건축가가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에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려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잠실지구 마스터 플랜, 목동지구 마스터 플랜, 서울 대공원 마스터 플랜, 부산 2000년 등 대규모 계획안을 그 동안 제시했습니다. 대형 작품을 한 이유도 큰 규모의 계획을 통해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고도성장의 시기가 끝난 지금은 하나의 작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대부분의 작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작은 스케일의 작업까지 건축가가 보다 많은 관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형태적인 연구와 재료의 선택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나 정갈한 디테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질의 건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항상 관심 있었고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학교 캠퍼스입니다. 이는 캠퍼스 내의 건물들이 아주 구체적인 목적으로 서로 엮인 작은 스케일의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큰 골격만 잡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주어진 캠퍼스 플랜 안에서도 하나의 건물을 구체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면 전체에 거꾸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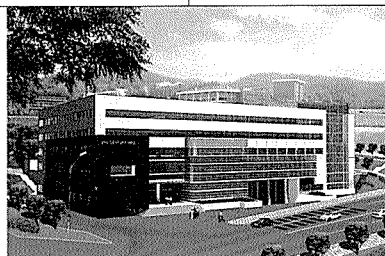
캠퍼스는 보통 4년 정도 삶의 터전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캠퍼스 시절의 건축적 공간적 체험이 아마도 그들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뇌리에 남을 겁니다. 여기에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토피아적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떠한지는 이야기하느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선뜻 책임지고 나서려는 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 보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도시계획 경험과 캠퍼스 건물을 많이 설계해 본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건물과 디테일까지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여건이 나빠진 지금이 비로소 크고 작은 스케일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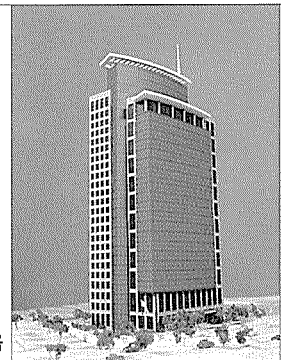
동정근 _____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기대합니다.



SK상사 사옥



백제대학교 21C관



홍국생명 본사사옥